

ㄹ 요한복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성경말씀: 요1:29-34

요한복음 강해 시작, 오늘 다섯 번째 강해, 1장 1-18절 도입부, 단단한 고기, 침례자 요한의 증언: 회개의 침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20).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23),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신약을 여신 분,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16), 구약은 모세와 율법(17), 신약은 예수님과 은혜와 진리, 아들은 아버지를 밝히 드러낸다(18), 그의 또 다른 증언(32-34) < >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양(29)

구약 성경은 예표(그림자), 신약은 실체, 기독교의 목표: 죄들의 용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죄 문제 해결, 사람 편에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죄를 미워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분 앞에 서려면 죄가 없어야 한다. 사람은 죄를 짓는다. 어떻게 죄를 없앨 수 있는가? 때처럼...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 죄 없는 자가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서 심판을 받으면 된다. 대신 속죄

대신 속죄의 사례

1. 아담과 이브의 죄, 에덴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힘(창3:21), 처음으로 대신 속죄, 시청각 교육
2.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자기 뜻대로 선한 행위로 나오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아벨은 부모의 교육을 받고 믿음으로 대신 속죄 어린양의 희생을 가지고 나눔(창4:4)
3. 아브라함 이삭을 바침: 그의 믿음을 보시고 솥양을 미리 예비하심(창22:13), 대신 속죄
5. 출애굽 사건: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어린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의 기둥과 인방에 뿌려라. 그 피를 보면 내가 그 집을 넘어간다(출12:21-23). 대신 속죄
5. 그 이후 레위기를 통해 짐승의 희생 예물 제도: (*) 그림, 죄를 지은 사람, 어린양이든 소든 짐승을 끌고 간다. 제단 앞에서 제사장이 칼을 가지고 기다림, 안수함, 칼을 넘겨주면 본인이 죽임, 죽은 다음에 조각내어 불에 던짐, 지옥 불, 이런 경험을 통해 죄를 덮어 줌, 죄가 제거되지 않음, 염소와 황소의 피로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히10:4). 이 일이 구약 시대 4000년 동안, 1500년 동안,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행위는 믿음의 표시
6. 영원한 해결책 필요: 반복을 끝내야 함, 짐승, 사람, 천사 안 됨.
7. 갈4:4,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여자의 씨로 보냄,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에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심(고후5:21), 완전한 희생물로서 하나님의 심판 담당,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 없음, 단 한 번에 영원히 대신 속죄를 이룸
8.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어린양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해결책을 믿음으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

기독교는 피의 종교

기독교는 피의 종교, 죄는 붉다(사1:18). 그래서 피로 덮어 하얗게 만들어야 한다.

이사야서 53장(6-7, 10-11)

신약 성경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묘사(1:29, 36), 계5:5-6, 13, 9-14, 13:8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29)

1. 어린양은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 다른 방법 없음 어린양,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하는 어린양,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 없다(히9:22).
2. 세상 죄를 제거한다. 세상: 온 세상 모든 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 제한 속죄가 아니다(요일2:2).
3. 죄: 죄와 죄들, 단수 죄: 근본 뿌리, 복수 죄들: 죄의 열매들, 단수 죄: 부리와 열매 모두
4. 제거한다. 구약은 덮는 것, 염소와 황소의 피가 죄들 제거하는 것 불가능, 어린양의 피는 죄들 제거
5. 결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셔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단번 속죄 희생물이 되어 영원한 사면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양,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불필요 단번 속죄(히10:11-14)

여기까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린양을 보라!

그 어린양을 바라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가? 어린양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스펠전 이야기

영국 설교의 황태자 스펠전(1834-1892),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목사, 그러나 청소년 시절에 구원을 받지 못해 엄청난 고민, - 복음을 듣기 전의 고통, "젊은 시절에 내가 겪었던 심적 고민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나는 이러한 고민으로 몇 년을 헤맸다. 율법의 고통을 직접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있다면 나아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나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약속은 성경의 무서운 경고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복이었고 죄인인 내게는 전혀 관계없는 사실임을 확인했던 것이다. 내가 느끼는 고통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려주었고, 영생과 영멸을 깨닫게 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내게 복음을 말해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소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국가에서 살았지만 비록 어린아이라도 깨달을 수 있고 누구든지 값없이 받을 수 있는 복음의 단순성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내가 살던 도시의 곳곳에 있는 교회를 다 찾아가 보았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교했다. 또 다른 분은 늘 율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또 어떤 분은 아주 실제적인 내용의 설교자였다. 마치 임전세인 군인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사령관 같았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절름발이를 모아놓고 작전 명령을 하달하는 것으로 들렸다.

나는 진정으로 복음 그대로를 전하는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었다.

- 드디어 복음을 듣다, 1850년 1월 눈이 오는 일요일 아침. 15살 나이의 나는 눈 때문에 늘 가던 교회가 아닌 가까이 있는 교회로 가고 있었다. 골목길을 지나서 조그만 감리교회의 예배당으로 가고 있었다. 거기에는 열다섯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찬송을 들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지 듣는 사람의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 목사님은 그날 아침에 오지 않으셨다. 아마도 눈 때문에 길이 막혔던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매우 말라 보이는 한 남자가 설교를 하러 강단 위로 올라갔는데, 그는 구두 수선공이거나 재단사 같은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 같았다. 그는 자신이 정한 구절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그것 이외에는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설교의 말씀은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였다 -이사야서 45장 22절

그는 단어의 발음조차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구절 속에 나를 위한 한 줄기 희망이 있었다. 그는 말하였다. "보는 것을 배우려고 대학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어도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연습을 하려고 1000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무어라고 말합니까?"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 말씀을 힘주어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는 마치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이 나에게 눈을 고정시키며 말했다. "젊은이여 당신은 매우 비참해 보이는군요." 나는 실제로 그랬다. 그는 계속 말씀했다. "당신은 앞으로도 항상 비참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구절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에 즉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 교회에 들어갔던 10시 30분과 12시 30분 사이에 나에게서는 분명히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단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나는 절망에서 일어났다. 너무도 기쁜 마음이 들어 나는 가족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 "무언가 위대한 일이 내게 일어났어요." 이 집안의 장자가 구원자를 발견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모두 들었을 때 그 날 우리 가정은 온통 기쁨이 충만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았는가?